

부산을 아시아 금융허브로...23개 지산학연 뭉쳤다

市·KRX·부산대 등 업무협약...인재·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입력 : 2022-12-15 19:51:11 | 본지 8면

부산을 아시아 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지산학연(지자체·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부산시는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캄코마루에서 BIFC 입주기관, 금융 유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부산 금융 중심지 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 금융 중심지 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에 참여한 지산학연 23개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주연 기자

이번 협약은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부산을 아시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동반성장자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사기관인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진흥원의 사원(구성원)기관 8곳(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BNK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 대학 6곳(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동의대 동서대) ▷유관기관 7곳(부산상공회의소 한국남부발전 주택보증도시공사 한국은행 부산본부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양금융종합센터) ▷연구기관(부산연구원) 등 23개 기관이 참여했다.

구체적인 협약 사항을 보면 ▷참여 기관은 지산학연 협력 사업 발굴·추진, 지역 인재 및 기업 지원 정보 플랫폼 구축 ▷대학은 소속 연구소 및 인력의 사업 참여 ▷연구 기관은 부산의 금융산업 및 금융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진흥원은 간사기관으로서 사업비 지원을 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3개 공동 협력 사업도 발표됐다.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 삼아 부산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